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2015년 1월 1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 세계경제 ]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 및 중국의 성장세 약화, 산유국의 금융·경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sup>1)</sup>				
(전기비연율, %)								(기말기준, %)				
		13	2/4	3/4	4/4	14	1/4	14	10월	11월	12월	15
		2	4	4	4	1	4					
		3	4	4	4	2	4					
		4	4	4	4	3	4					
미	국	1.8	4.5	3.5	-2.1	4.6	5.0	미국	2.34	2.16	2.17	1.86
유로지역		1.3	0.7	1.0	1.3	0.3	0.6	독일	0.84	0.70	0.54	0.42
일	본	3.0	1.6	-1.5	5.8	-6.7	-1.9	영국	2.25	1.93	1.76	1.51
중	국 <sup>1)</sup>	7.5	7.8	7.7	7.4	7.5	7.3	브라질	12.07	11.82	11.42	12.21
								인도	8.28	8.09	7.86	7.77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 [ 실물경제 ]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내수의 회복이 미약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14.1/4	2/4	3/4	4/4	14.9월	10월	11월	12월
GDP 성장률	3.0	..	3.9	3.5	3.2	..	-	-	-	-
GDP 민간소비	2.0	..	2.5	1.5	1.5	..	-	-	-	-
소매판매	0.8	..	2.5	0.7	1.4	..	1.4	-0.2	1.0	..
(S.A, 전기비)	-	-	(0.3)	(-0.5)	(1.4)	..	(-3.4)	(-0.1)	(1.9)	..
GDP 설비투자	-1.5	..	7.3	7.7	4.3	..	-	-	-	-
설비투자지수	-1.3	..	5.9	6.2	1.5	..	13.0	-8.5	10.6	..
(S.A, 전기비)	-	-	(-5.2)	(2.1)	(-0.9)	..	(13.5)	(-4.5)	(13.1)	..
GDP 건설투자	6.7	..	4.3	0.2	2.6	..	-	-	-	-
건설기성액	10.1	..	6.5	0.1	-1.9	..	-4.0	-5.7	-9.6	..
(S.A, 전기비)	-	-	(1.5)	(0.2)	(-3.2)	..	(-6.0)	(0.4)	(-1.7)	..
수출(통관)	2.1	2.4	1.6	3.2	3.6	1.2	6.3	2.3	-2.4	3.7
(일평균, 억달러)	(20.5)	(21.1)	(20.7)	(21.9)	(20.7)	(21.3)	(22.6)	(22.5)	(20.8)	(20.7)
제조업 생산	0.3	..	0.6	0.3	1.2	..	2.0	-3.4	-3.5	..
(S.A, 전기비)	-	-	(0.4)	(-1.1)	(-0.1)	..	(-0.1)	(-1.8)	(1.4)	..
서비스업 생산	1.4	..	1.9	1.4	2.6	..	3.1	2.7	2.1	..
취업자수 증감 <sup>1)</sup>	385.7	533.0	729.4	463.7	516.5	421.9	450.9	405.9	438.3	421.6
(공공부문 <sup>2)</sup> 제외)	(371.4)	(541.2)	(703.5)	(461.8)	(527.3)	(471.6)	(464.3)	(457.4)	(481.3)	(476.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물 가 ]

-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로 전월의 1.0%에서 0.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6%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움직임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4.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1.4	1.1	1.2	1.0	0.8
(전월비)	(0.2)	(-0.1)	(-0.3)	(-0.2)	(-0.0)
▪ 농축수산물	-4.8	-3.0	-1.9	-0.1	1.0
(농산물)	(-12.6)	(-9.4)	(-7.7)	(-6.2)	(-4.1)
▪ 공업제품	2.1	0.9	0.6	-0.1	-0.6
(석유류)	(-4.7)	(-5.7)	(-6.2)	(-7.7)	(-11.4)
(석유류제외)	(3.5)	(2.2)	(1.9)	(1.4)	(1.5)
▪ 서비스	1.7	1.7	1.7	1.6	1.6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2.4	1.9	1.8	1.6	1.6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대비, %)				
	14.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택 매매가격	0.1	0.3	0.3	0.2	0.2
▪ 수도권 <sup>1)</sup>	0.1	0.3	0.3	0.1	0.1
(서울)	(0.0)	(0.2)	(0.2)	(0.1)	(0.0)
▪ 지방 <sup>2)</sup>	0.2	0.3	0.3	0.3	0.3
주택 전세가격	0.2	0.3	0.3	0.3	0.3
▪ 수도권 <sup>1)</sup>	0.3	0.4	0.4	0.3	0.4
(서울)	(0.3)	(0.4)	(0.4)	(0.3)	(0.4)
▪ 지방 <sup>2)</sup>	0.2	0.2	0.2	0.2	0.2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수도권 제외  
자료: 국민은행

##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주요국 주가하락,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엔화 약세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원·엔 동조현상이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리, 주가, 환율<sup>1)</sup> 및 가계대출

	14.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114월
CD(91일)금리(%)	2.40	2.35	2.14	2.13	2.13	2.13
국고채(3년)금리(%)	2.51	2.30	2.14	2.07	2.10	1.97
KOSPI	2,069	2,020	1,964	1,981	1,916	1,914
원/달러 환율	1,014	1,055	1,069	1,108	1,099	1,082
원/100엔 환율	977	965	964	937	913	924
은행 가계대출 <sup>2)</sup> 증감(조원)	4.6	3.7	6.9	6.9	6.6	..

주: 1) 기말기준

2) 모기지론 양도 포함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세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